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지난 2년간 제자 양육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제자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다음 주일, 12월 22일 주일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EM과 함께 연합 예배 드립니다.
4. 오늘 아프리카 목장 김종원(하영) 형제 집에서 모입니다. 귀한 교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6. 12월 29일 주일 예배 직후에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7.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저녁 8시에 모여 식사와 친교의 시간 함께 갖고 예배 드립니다.

12월 예배 위원

안 내	박래석		박승화			
기 도	한정임(1)	한규철(8)	김정신(15)	한미숙(22)	조창(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수요 제자 양육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7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희 생명샘장로교회 홈페이지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족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도 그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니, 주님의 힘과 지혜 그리고 인내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주간도 주님의 동행을 사모하며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니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예배 2024년 12월 15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지난 이레 동안에 / 찬송가 44(신) 56(구)

*성시 교독 /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오랫동안 기다리던 / 찬송가 105(신) 105(구)

기도 / 김정신 권사

성경 봉독 / 요한복음 3장 1-16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하나님 나라 / 박화신 목사

찬송 / 영광 나라 천사들아 / 찬송가 118(신) 118(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4절 / 찬송가 134(신) 84(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말씀 요약

1.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2. 영원히 썩지 않을 씨 곧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3.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4. 하나님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마음에 의와 영광과 희락의 모습으로 임재합니다.
5.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예배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증거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3-24년 표어

행하는 교회

> 뿌리를 박으라

골로새서 2장 6-7절

> 세움을 받으라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굳게 서라

지난 주일 설교 요약 /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 뻔전 1:23-2:3

1. 하나님 말씀은 사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마치 정말 악독한 사람에게 하는 말 같지요.
2.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악독, 기만 시기, 비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씨,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유인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3. 거듭난 사람, 구원 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라나야' (2:2)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라남의 끝이 '구원' (2:2) 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지요.
4. 우리 모두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주님은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나오는 간증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삶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싸우는 것이라고요.
5. 주님의 용서(인자)하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